

‘비움과 나눔’의 무소유 실천하자

부처님오신날을 20여일 앞두고 전국 교구본사 주지스님들이 한자리에 모여 올해 봉축행사의 방향과 5대 결사 실천 논의의 시간을 가졌다. 또 부처님께서 이 땅에 나부신 의미를 살려 비움과 나눔을 실천하자는데 의견을 같이하고, 오는 5월 8일 12시 MBC와 공동으로 진행하는 ‘비움과 나눔’ 캠페인에 적극 동참하기로 결의했다. 이날 생방송으로 중계되는 ‘비움과 나눔’ 캠페인은 서울 조계사와 충남 공주 마곡사, 전북 고창 선운사, 대구 동화사에서 동시에 열릴 예정이다.

전국교구본사주지회의, 올해 봉축 논의 ‘대정부 관계, 폭넓은 의견 수렴’ 건의도

도 적극 동참해주기 바란다”고 당부했다. 교구본사 주지 스님들은 불기 2555년 봉축행사를 자성과 쇄신을 위한 5대 결사를 실현하고 무소유와 비움 나눔의 실천의 장으로 봉행하는 중단의 봉축행사 방향에 공감대를 표했다.

이날 교구본사 주지 스님들은 한 목소리로 지난 3월 자연공원법이 개정된데 이어 각종 불교관련 규제 법령과 제도를 개선해 나가야 한다고 강조하며 다양한 의견을 개진했다. 불국사 주지 성타스님은 “불교계의 오랜 숙원사업인 자연공원법 개정을 이룬데 대해서는 큰 업적을 이뤘다고 평가한다”면서도 “자연공원법 뿐만 아니라 각종 규제법령을

결정하겠다는 뜻을 피력했다. 총무원장 자승스님은 “5개월동안 한 목소리로 민족문화에 대한 정부 여당의 친박한 인식 전환을 요구해 왔다”면서 “한나라당이 전통문화발전 특위를 구성하고 국가브랜드위원회에서의 대통령의 발언이 있었지만 중단은 진실성과 책임성이 중요하다는 관점에서 지켜보고 있다”고 설명했다. 총무원장 스님은 이어 “본사주의 스님들의 의견을 잘 들었다. 오는 25일 중앙종회 의장단과 상임분과위원장, 종책모임 대표와의 연석회의 등을 통해 중도들의 의견을 폭넓게 수렴한 뒤 총무회의를 통해 중단의 입장을 정리하도록 하겠다”고 입장을 밝혔다.

또한 교구본사 주지 스님들은 이날 회의에서 안거기간 중 월1회 이상 개최하도록 규정한 본사별 포살범회 관련규정을 개정해 각 안거기간 중에 1회 이상 실시하도록 법률을 개정해 달라고 총무원에 요청했다. 이와함께 종교평화위원회가 추진하고 있는 지역 종교평화위원회 설립과 군종특별교구가 추진중인 육군훈련소 호국연무사 신축공사에 대한 보고를 받고 원만회향할 수 있도록 관심과 지원을 펼치겠다고 뜻을 모았다.

한편 총무원장 자승스님과 교구본사 주지 스님들은 이날 회의 후 서울 올림픽공원 우리금융아트홀로 자리를 옮겨 ‘무지컬 원호’를 관람했다.

박인탁 기자 parkintak@bulgyo.com



지난 22일 개최된 전국 교구본사 주지회의. 신재호 기자



지난 19일 한국불교역사문화기념관 1층로비와 나무갤러리에서는 한국불교꽃예술전이 개최됐다. 이 가운데 아기부처님의 관육의식을 장엄하는 관불화가 시선을 사로잡았다. 신재호 기자 air501@bulgyo.com

역사교육관 건립예산 요구안 논의

‘10·27명예회복위’ 2012년도 804억 요청

10·27반과해자명예회복심의위원회가 2012년도 예산에 반영할 역사교육관 건립 예산요구안에 대해 논의했다. 10·27반과해자명예회복심의위원회(위원장 영담스님, 총무원 총무부장)는 지난 19일 서울 종로구 동덕빌딩 위원회 회의실에서 제17차 명예회복심의위원회의를 열었다.

위원들은 이날 역사교육관 건립예산 1513억 가운데 2012년도에는 804억 원을 요청하자는데 의견을 모았다. 또 2013년도에는 320억 원, 2014년에는 389억 원으로 3개년 동안 나눠서 예산을 요청하기로 했다. 위원들은 국방부에 요구안을 제출하기 전 심의회의를 열고 추가 검토하기

로 했다. 본지의 10·27법난의 명예회복과 보상의 필요성을 강조하는 보도 이후 이 같은 요구안이 구체적으로 논의돼 앞으로 예산 반영으로 이어질 수 있을지 귀추가 주목되고 있다. 이에 대해 10·27위원회의의 한 관계자는 “국방부 차관을 비롯해 위원들은 예산안에 대해 충분히 문제를 인식하고 적극 돕겠다는데 뜻을 모았다”며 “건립예산으로 총 1513

억을 요구하기로 했지만 아직까지 요구안 자체가 결정되지 않았다”고 말했다. 이어 “실무진들과 논의 후 위원들과 검토하기로 했다”고 덧붙였다.

또 10·27위원회 사업을 국가직접시행사업에서 국가보조금사업으로 변경해 달라는 조계종의 요구에 대해서도 조계종과 협의하는 등 본회의에서 토의하기로 했다. 이밖에도 안전으로 상정된 명예회복 및 의료지원금 지급 신청안 4건과 상이자 의료지원금 지급 결정안 4건을 통과했다. 이날 회의에는 위원장 영담스님을 비롯해 삼보스님, 이용결 위원, 윤원호 위원, 이명록 위원, 허남오 위원, 박종준 위원 등 10여 명이 참석했다.

홍다영 기자 hong12@bulgyo.com

부처님오신날을 준비하는 사람들 ⑨ 대전하나합창단

재적사찰 다른 20여명 봉축음악회서 음성공양

“봄비나 동산에 꽃들이 만발하여 못 생명 환희하며 기쁨으로 예경하네...”

지난 7일 대전 탑림동에 위치한 여진불교미술관 광명당에서 부처님오신날을 찬탄하는 청아한 음성이 울려 퍼졌다. 대전 하나합창단(단장 최미순)은 부처님오신날을 앞두고 그 어느 때보다 찬불가를 맹연습 중이다.

하나합창단은 이날 연습한 곡은 ‘부처님오신날’과 ‘아름답다고 하는 것은’ 등 2곡이다. 대전불교봉축위원회 주최로 오는 18일 대전연정국악원에서 열리는 봉축음악회에 참여해 음성공양을 올릴 곡이다.

지난 2001년 조계종 창작찬불가 공모에서 대상을 받은 최봉중 씨의 지도로 이날 하나합창단은 오

“맑은 목소리로 환희심 전해요”



부처님오신날을 앞두고 연습에 매진하고 있는 대전하나합창단 모습.

전 9시30분부터 12시까지 연습을 했지만 누구하나 지친 기색이 없이 기쁜 마음으로 최선을 다하는 모습이였다. 하나합창단은 단원 모두가 재적사찰이 다르다. 찬불가를 좋아하지만 자신이 다니는 사찰에 합창단이 없는 사람들로 구성되었으며 현재 23명이 활동하고 있다. 연습

은 매주 목요일 오전마다 여진불교미술관 광명당에서 한다. 하나합창단 최미순 단장은 “사람들에게 희망의 메시지를 전달하기 위해 한 송이 연꽃을 피우는 마음으로 열심히 연습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시영 충남지사장 isy@bulgyo.com

중단 정책 평가 및 계획 논의	3면	자승동 조계사 신도회장 취임	18면
------------------	----	-----------------	-----

대한불교조계종과 함께하는 재향군인회 상조회

불자님들, 이제 안심하셔도 됩니다

불자님의 상조피해를 막고자 종단에서 직접 검증했습니다
 믿을 수 있는 재향군인회 상조회에 지금 가입하십시오

무료상담

조계종이 보증하는 유일한 번호 | 상담 시 다니시는 사찰 명을 말씀해주세요
080-888-5000

경제적인 상조
장례비용이 시중보다 저렴합니다

편리한 상조
복잡한 장례절차를 모두 해결해드립니다

한결같은 상조
물가가 올라도 추가 부담 없습니다

대한불교조계종 **재향군인회 상조회**

중요정보 고시사항 1.종도해원금 및 환급기준 가. 표준의관 제15조 제 규정의 의한 나. 환급금액은 신청일부터 제 3영업일 이내에 환급 다. 만기3개월 후 해지시 남입금액의 100% 환급 2.소비자 분쟁 시 분쟁의 해결기준 공정의 소비자 분쟁해결기준에 의함 3.주요제품물품 및 서비스 내용 가. 수의 원단 제복에 소요되는 원사의 종류 및 원산지 • 원사의 종류:대마100%(중국산) • 원단의 제조 방법 및 제조사 및 수제직(국내인등 나. 관의 재질 • 두께 및 원산지 • 매장시:오물(무중국산) 3~4.5cm • 화장시: 오물(무중국산) 1.8~3cm 다. 차량의 종류 및 무료로 제공되는 차량거리 • 차량의 종류 - 운구리무잔 린컨캐탈라(2006년 이상) - 장의버스:현대, 기아(2006년 이상) • 추가비용:상물별 기본 무료제공 이외 거리 추가시 10km당 운구버스16,000원 리무진 18,000원 ※차량 및 비용은 제공지역 및 행사차에 따라 차이가 있을 수 있음 라. 도유미 추가시:1인당 8만원(10시간 제공, 2009년 기준임) 4.재향군인회 상조회 현황 (2010년 3월 10일 기준) 가. 상조관련자산 19,965,615천원 총 고액 합금의무액 15,400,603천원(공인회계사의 회계검토를 받았음-호림회계법인) 5.고액합금의 관리방법 고액합금의 35.8%는 별도의 계정으로 농협 외 4개의 은행에 예치하고 있으며, 그 외 자산도 감독기관의 관리 감독하에 안전하게 관리하고 있습니다.